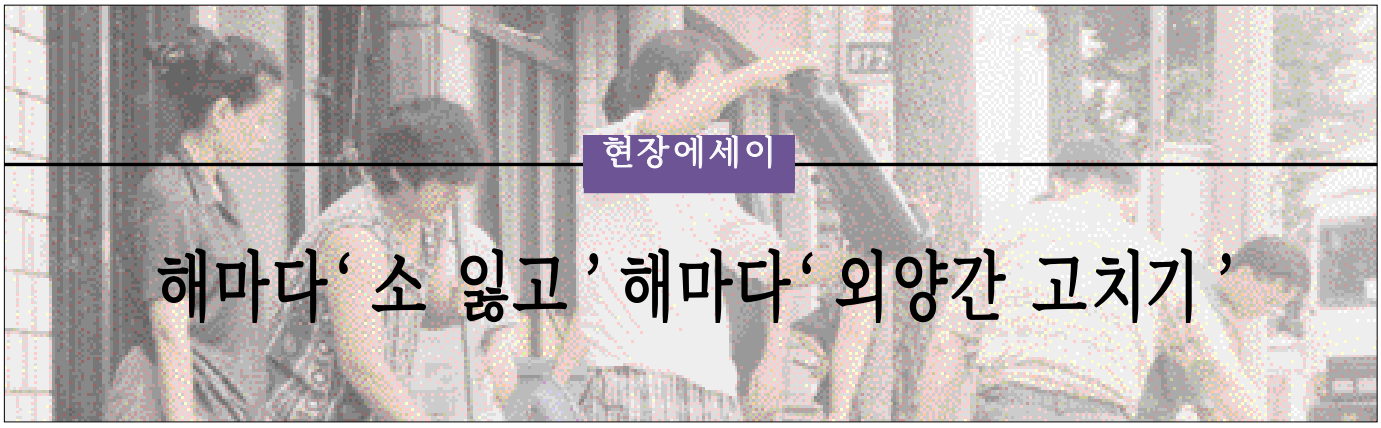

현장에세이

해마다 '소 잃고' 해마다 '외양간 고치기'

조재구(문필봉)
목수·시인

물 난리의 8월이었다.
무더운 가뭄으로 지하수까지 고갈되어
식수 난리를 치더니
하순에는 숫제 양동이로 퍼붓는 홍수로
물 난리를 치렀다.
구약성서 창세기 칠장의 악이 그득한 세상을
사십주야 물의 심판으로 징벌하던
노아방주를 상상케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말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우리의 속담이다.
태풍, 홍수로 엄청난 피해를 본 팔월에
이 말이 실감 난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인재라느니
재해라느니, 의견이 분분하지만
엄연히 얼마간이라도 줄일 수 있는 재난이다.
우리나라는 장래성 없는 계획하에
임시방편으로 건설되어 사고가 나면
서로 떠밀기가 일쑤이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도로 사정은 특히, 더하다.
도로를 건설하려면 위험 지역(취약지구)은
기초를 함은 물론, 철근을 넣은 옹벽을 만들고
물의 흐름을 돕는 맨홀을 만들어야 하며
흙을 되메우기와 다지기를 하여 포장하여야 하는데
그냥, 흙을 메워 그 위에 지반 포장을 한다.
그러니, 물의 흐름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의 홍수에도 토사가 유실되고 붕괴되어
해마다 수많은 재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군, 관, 민 합동으로 응급 복구를 한다.
매스컴에서는 실의에 빠진 수재민에게
성금을 보내자고 한다. 그리고,
높으신 분들의 의례적인 얼굴 알리기로
방문하여 악수와 함께 몇 마디 위로의 말을 한다.
그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현실을 직시하여
근본부터 복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즉, 해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실적 위주의 임시방편보다는
한번 소를 잃고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서
두 번 다시 소를 잃지 않았으면 한다.

임시 복구, 붕괴, 유실, 또다시 임시 복구
이것이, 반복될 때마다 국민의 세금은 가지 수도 늘고
액수도 오른다. 정말,
해마다 목불견이다.
근심으로 울부짖는 피해 주민들,
연례 행사로 군, 관민의 동원령,
자의든, 타의든 해마다 내야 하는 재해민 돕기 성금,
어느 누구든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다.
요즈음, 높으신 분들이 억억하며 토해내는
억대 비리 사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수백, 수천 억씩 피해를 당하고 보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인재, 자연 재해에 대한 총괄 기구를 설치하여
적극 검토한다 하니 고무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말보다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용두사미가 되지 말아야 하겠으며
'빈 수레가 요란하다' 하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하겠다.

일러스트레이션 : 김순금